

색인, 종이책의 '오래된 미래'

이용훈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색인'은 전통적인 책의 구성요소 가운데 디지털 시대와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 물리적으로 닫힌 책의 공간을 열어 독자에게 확장된 독서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색인의 생명은 정확성과 그것에 들인 '공'에 있다. 컴퓨터의 발달로 자동색인이 가능해졌지만 색인이 여전히 저자와 출판인의 몫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세기 들어 '책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연속성, 논리적인 시간의 질서 등에 따라 일정하게 닫혀 있는 방식의 매체인 책이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디지털 시대에도 전통적 방식의 책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시대와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진화'해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와 책이 소통하는 '진원지'

책은 시작과 끝이 확실하게 드러난 닫힌 구조며 저자와 독자가 명백하게 구분돼 있어 서로간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화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온 세계가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오늘날에는 종이책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공을 넘나드는 쪽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종이책의 전통적 한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으며 나름의 해결방식을 개발해 왔다. 목차와 각주, 참고문헌 그리고 색인과 같은 것들이 그 결과물들이다. 그 가운데 색인은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 등 책에서 주요한 내용이나 단어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열해 줌으로써 독자가 그것을 이용해 쉽게 본문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색인은 단행본의 경우 권말색인이 보통이나 저자색인, 주제색인 등 다양한 형태의 색인이 물리적으로 닫힌 공간(책)의 내용을 좀더 자유롭게 풀어내며 독자의 읽기를 확장시킨다. 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자를 향한 일방적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기 글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저자와의 다양한 대화를 위한 수많은 통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 필요와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색인은 새로운 글쓰기와 읽기가 주도하는 이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 전통적 글쓰기와 읽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책이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이성 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존재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매체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인과 저자의 인식변화 요구돼

우리나라의 경우 저자나 출판사, 심지어 독자들 까지도 색인은 그저 책의 꼬트머리에 장식처럼 붙어 있는 정도로 생각해 실질적인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색인이 있는 경우에도 색인어의 선택이 부정확하거나 통일성이 없고, 배열도 혼란스럽고, 소재위치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색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색인작성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 색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자동색인이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통해 기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고, 해석되고 재조직된 지혜며 지식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계적 색인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색인은 책의 내용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색인어는 매우 정확하게 선택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아무리 기술의 유용성이 높은 시대라 하더라도 '책'을 통한 대화방식을 시대에 맞도록 갱신하는 유력한 방식인 색인은 여전히 저자와 출판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색인이 시작도 끝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독자들을 안정적인 책읽기로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책이 더욱 더 생생하게 개개인 삶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면, 색인은 분명 21세기 책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 독자와 출판사의 적극적 투자와 독자들의 합리적이고 진지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정확한 색인을 담은 좋은 책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